

2016년 AAAAI 로스앤젤레스 학회를 다녀와서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호흡기 알레르기

전임의 양혜경

2016년 3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 2016 AAAAI (American Academy of Allergy Asthma & Immunology) Annual Meeting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되었다. 호흡기 알레르기를 전공한 이후 작년 WAO가 한국에서 열려 국제학회를 한 차례 경험했었으나 막상 외국에서 세계 각국의 석학들의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경험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는 마음으로 출력한 포스터를 손에 꼭 쥐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학회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는 투숙했던 호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여 매일 아침마다 열리는 Plenary session 부터 놀 치지 않기 위하여 일찍부터 일과를 시작하였다. Plenary session은 첫째 날은 'Immunoglobulin E: The First 50 Years and Beyond', 둘째 날은 'Clinical Insight Into the Prevention and Modification of Atopic Disease', 셋째 날은 'The Exposure: The Dynamic Role of the Environment in Shaping Risk for Disease'의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그 분야의 최고 논문에서 이름으로만 접하던 "저자 직강"의 느낌으로 매우 유익하고 뿌듯한 시간이었다.

학회는 그 명칭대로 allergy, asthma, immunology의 크게 세 분야의 각각의 세부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고 동시에 수십 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미리 스케줄을 짜서 움직여야 했다. 영어에 자신이 없어서 강의를 잘 쫓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었는데 Food allergy에서는 최근 어느 학회를 가도 항상 거론되고 있는 LEAP study 의 Gideon Lack의 강의가 많아서 조금이라도 더 친숙하게 이해가 되어 좋았다. Leap-On Study와 Sampson 교수님의 peanut patch, pro & co program가 특히 흥미로웠다. 그리고 EAT study를 비롯한 여러 센터의 oral immunotherapy 경험을 들으며 oral immunotherapy의 기본적인 원리와 현재의 연구, 미래에 대한 동향을 엿볼 수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oral immunotherapy가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Atopic dermatitis에 관한 session에서 skin barrier, molecular mechanism, immune response등의 분자생물학적 연구를 접할 수 있었고, 특히 외국의 석학이 우리 연구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소개되어 매우 자랑스러웠다. Asthma 부분에서는 환경인자와 감염, 악화 요인, 그리고 최신 치료법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어 현재 집필 중인 논문에 인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Immunology session은 immune deficiency disease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고, 작년에 수많은 문헌검색과 고민을 하며 진료하였던 Omenn syndrome에 대한 강의를 접할 수 있어 더욱 뜻 깊은 학회였다.

연중 온화한 바람과 햇살로 가득하다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의 강의도 듣고, 관심 있는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도 살펴보며 호흡기 알레르기 분과를 시작한 지 일년 남짓의 입문자의 눈에는 약간의 친숙함과 무한한 생소함, 경이로움으로 가득했던 학회였다. 또한 첫바퀴처럼 굴러가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세계 다양한 학자들의 자유롭고 열정적인 노력은 생생한 자극제로 작용했고 더욱 열심히 배우고 익혀나가야 함을 다짐해보았다.



2016 AAAAI가 열렸던 컨벤션 센터에서